

오피니언

다산포럼

허욱



5·31 선거의 후폭풍으로 정계개편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2007년 12월의 대선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성급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5·31 지방선거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저항투표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표심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중에서 대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항의투표의 현상적 결과가 한나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유지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반 노무현, 반 열린우리당의 반사이익을 거둔 것에 불과하다.

5·31 선거가 남긴 과제

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반 노무현, 반 열린우리당의 반사이익을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이 거두었을 뿐이다.

국민중심당은 인정 받지 못했고, 민주노동당 역시 대안세력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은 표로써 나타냈다.

차기 대선의 희망주자를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치개혁과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실상 민주당을 분당하고 나온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과의 재통합론을 거론한 것은 개혁의 실패를 자임한 퇴행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참패 이유는 개혁주도층과 지지기반층의 정서적 공감대의 괴리이다.

복관계,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대해 '당신들의 개혁'일 뿐 먹고 살기도 힘든 생활고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관심, 무책임, 무능한 것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과제는 아직 어느 정당과 정치세력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현실적이면

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올바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한 '반사이익'을 '자랑지'로 오만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경쟁격화와 고용불안,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주장하는 1천만 가까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쉼집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7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정치적 대표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민주화 이후 몰아친 세계화의 과제, 성장동력의 확보,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남북관계 개선 등의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정계개편론의 초점은 특정인물들의 연대나 지역구도의 복원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리더십 구축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與, 부동산·세계 재논의는 당연한 것

열린우리당이 지난 주말 강원도 홍성에서 워크숍을 갖고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검토하는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과 세계 정책 개선에 착수했다.

세금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치솟은 집값을 잡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보유세와 양도세는 대폭 올리면서 취득·등록세는 묶어놓는 바람에 집을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시민장관의 국민연금 개혁안 실망스럽다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스럽지만 수행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바로 국민연금 개혁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그 심각성이 논의돼온 국민연금 재정문제는 이대로라면 오는 2047년엔 완전 바닥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선거 패배후 캐나다 멀루니 총리의 연방부기세를 예로 들며 국민이 싫어도 할일은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정작 '할일'에 해당하는 연금개혁은 이런 수준이다.

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고 이삿짐 운송이나 도매, 인테리어 등으로 먹고 사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방침은 백년 훑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국민들 지지를 얻기 힘들다.

다행히 열린우리당이 기존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정책 고수 방침을 밝힌 청와대의 말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無等鼓

지구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는 단연 축구다. 그중 월드컵은 성별, 나이, 정치적 이념을 초월, 전 지구인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구제이다.

월드컵이 오늘날 인류 공통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짝을 띄운 시점은 어느 때일까. 전문가가다가 이견이 있지만 1974년 서독월드컵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無等鼓

선수들의 유니폼에 처음으로 등번호가 등장했다. 그러나 녹색 그라운드와 흰색과 좌절, 각본없는 드라마가 지구촌 방방곡곡에 생생하게 첫 방영된 시점은 74년 서독 월드컵이다.

인간의 축제

월드컵축구는 제3대 FIFA 회장이자 프랑스의 축구 행정가였던 줄리메에 의해 창설돼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개막됐다. 하지만 세계인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최희동

이제 선거는 끝났다. 이번 5·31지방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여 불량품이 아닌 좋은 제품을 선택한 것일까?

이번 5·31지방선거는 호남지역을 제외하곤 한나라당의 싹쓸이로 끝났다. 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지지보다는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국민들의 준엄한 심

다. 민주당 최인기, 이낙연, 김효석 의원들의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력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장으로 출마한 열린우리당의 조영택 후보는 인지도에서는 물론 공천까지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짧은 일정으로 인하여 민주당의 박광대 당선자하고는 여론조사 결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자살골에 환호하지 마라

판이라는 것이 옳을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엄청난 감정적 반발의 특혜를 입었다.

이제 우리 지역민의 관심은 내년 말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로 쏠릴 수밖에 없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처음으로 이룩하였고, 나아가 정권을 재창출한 경험과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특히 화합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무안과 신안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비교적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했

다. 민주당이 확보한 자치단체장 정도는 자칫 자살골일 수도 있다. 여기에 지나치게 환호하지 말고 어떠한 역할로 정권재창출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정당은 개인적 이기주의로 장악하고 사당(私黨)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이제 바람직하게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사무총장>

'명품족' 선호학생에 경제교육 강화했으면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라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다. 정말 그렇다. 운전자들이 타이어 옆부분이 찢어져 전부 교체해야 하는 경우 타이어값 7만~8만원을 내려고 하면 광장히 아깝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알겠지만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면 1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선호한다. 머리핀부터 옷·신발까지도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친구 관계도 이러한 성향이 맞는 친구들끼리 나뉘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몇십만원 짜리 고급 운동화를 구입하기 위해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한 경제활동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신은영·광주시 남구 양과동



새끼 봐주기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거나 유모차를 타고 새근새근 잠들어있는 어린아이를 보면 귀엽다. 내 자식이 아니라도 말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꼭 자기 새끼가 아니라도 동물 새끼를 보면 귀여운 모양이다. 영양을 들보는 암사자 이야기가 해외 토픽으로 지면에 실리기도 했다.

사진 속 거대한 쌍봉낙타도 자신의 등을 새끼양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다. 참는 것도 한 두번이고, 뽀족한 발톱으로 반복해서 오르내리다보면 귀찮을 것 같은데 젊은 기색도 없다.

모든 동물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 새 사자나 침팬지는 자기 새끼들을 똥방 물어 몰살하는 일들도 생기기 말이다.

오랫동안 동물들을 지켜 보면서 '참 않다'고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자나 침팬지의 행동도 권력을 얻기 위한 본능적인 것으로 믿고 싶다. 그때 상황만 지나가면 공동 육아도 하고 웬만한 새끼들의 재봉도 모두 받아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의 원초적 감정일 것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초고령화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 높여야

'9988234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근 노인들 사이에서는 최신 유행어나 다름없다고 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3일째 되는날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의미라고 한다.

나이 가 들면서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다가 고상하게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중풍·암·치매 등 고질병으로 오랜 동안 투병생활을 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진도 많은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선진국의 보장성 비율인 80%보다는 부족함이 많다. 보장성이 높을수록 국민들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반면 보험료를 많이 올린 보장성 확대 방안은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은 적은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의료 상업화가 가능해지면 차별화된 진료서비스를 통해 진료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높은 의료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집이 팔려 치료 받기를 꺼린 채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노년을 보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해야 할 일이다.

▲문성희·목포시 축후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鎭,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廣州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